

故人과 온라인으로 만난다

도봉사 110억원 투입... "3년내 유비쿼터스 영각전 완공"

갑작스런 사고로 남편을 잃은 보리심 보살. 남편의 목소리라도 한 번 듣는다면 생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사할에 마련된 유비쿼터스 납골당에 남편의 유골을 안치하고, 실시간 대화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 커요"고 말하니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고 있으니 걱정 말아요"라는 대답이 들려온다. 가상의 공양물을 올리니 남편의 웃는 얼굴까지 볼 수 있었다.

놀랍고 황당한 '먼 얘기'가 아니다. 적어도 3년 안에 서울 도봉사 유비쿼터스 영각전(납골당)을 통해 실현될 내용이다. 도봉사(주지 원봉)는 1월 12일 (주)코야정보시스템과 110억원의 유비쿼터스 영각전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대로라면 도봉사 영각전에는 '고인과

도 네트워크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그와 관련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지원된다. 불교계 최초로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네트워크상에 존재하고, 어떤 것을 이용해서라도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개념이 사할 납골당에 적용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서비스는 납골당 분양자에게 개인적으로 제공된다. 1평 정도의 공간에 유골을 안치하고 그 뒤로 스크린이 배치된다. 가족들은 고인의 모습과 기록, 기억하고 싶었던 순간에 대한 입체 화면을 볼 수 있고, 고인의 채찍까지 느낄 수 있다. 실시간 대화형 시스템도 갖춰지기 때문에 고인과의 대화도 가능해진다. 디지털 TV, 차세대 모바일 단말기, 손목 PC 등만 있으면

유무선 통신 및 위성 통신 방식으로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도봉사측은 이를 위해 지하 2400여 평의 공간을 확보하고 빠르게 3~4월경 납골당 시설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비쿼터스 영각전 시스템을 특허출원한 코야정보시스템 이승진 기획이사는 "3년 전부터 도봉사 주지 원명 스님과 함께 시스템을 준비해 왔으며, 1년 4개월 안에 모든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봉사 주지 원명 스님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통해 납골당이 완성되면 돌아가신 영가들과 살아있는 가족들이 온라인 네트워크로 만나 가족의 끈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thasjw@buddhapia.com

연변에 수월 스님 추모 사찰 건립

중국 조선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연변자치주에 수월 스님을 기리는 수월조사전을 포함, 대각사가 건립된다.

중국 베이징대(北京大)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암 스님과 쉬멍림(許夢琳) 연변자치주 종교처장, 대각사 건립위원회 신숙대표는 1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지원을 부탁했다.

연변 연길시 의란진 태암촌 병풍산 자락(연길시 중심에서 차량으로 20여분 거리)에 건립되는 대각사는 수월조사전, 대웅보전, 보제루, 요사채, 생활문화관 등을 포함 전체 1만5000여평으로 조성된다. 지난해 9월 3일 중국 당국으로부터 건립 허가를 받고 현재 터파기가 마무리 된 상태다.

올 4월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수월조사전은 800여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조성된다. 1층에는 수월 스님 유물 전시관이 들어서며 2층에는 수월선원과

1만5천평 규모 130억원 예상 조계종 방문해 도움 요청 법장 스님 적극 지원 약속

천수경 대비주 기도원으로 꾸며진다. 조사전 뒤편으로는 수월 스님의 입대기를 그림과 글(한·중·영어로 번역)로 육판에 새긴 수월십상도(十相圖)도 마련된다. 조사전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올 3월 1일 35평 규모의 임시법당을 건립할 예정이다.

대각사 총 건립비용은 130억원 정도. 이중 조사전 건립만 10~5억원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건립위원회측은 한국불교계의 도움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쉬멍림 종교처장은 "대각사가 완공되면 연변

불교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수월 스님 사상연구소 설립 △수월문화회관 건립 △연길불교협회 창립 등을 향후 계획으로 내놓았다.

이에 대해 법장 스님은 "대각사가 완공되면 한국불교를 중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포교 활성화에도 부합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월 스님은 1855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 29세에 연암산 천장사로 출가했다. 1910년 연변으로 건너간 스님은 흑룡강성 수분하 상유지역 동삼차구에 고려사를 세웠다. 스님은 여기서 절신과 주먹밥을 만들어 항일유격대에 보내주고 부상당한 유격대원들을 치료해주는 등 항일독립운동을 펼쳤다. 경허 스님의 선종을 이은 스님은 복수월, 중만공, 남해월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연기론은 생명윤리의 근거"

불교생명윤리 세미나서 제기

"경전을 근거로 하는 것 못지않게 현대 사회의 상황에 맞는 생명윤리정립이 중요하다."

생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정립하기 위한 '불교생명윤리 세미나'가 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도법 스님과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미산 스님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낙태, 사형, 배아복제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접근방법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전남대 이종표 교수는 "연기론적 세계에 대한 이해는 현대

과학의 시스템이론의 관점과 통하는 것으로 타인은 물론 자연을 자신처럼 생각하는 동체자비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는 생명윤리의 근거가 된다"며 "불교윤리의 올바른 정립은 상호인과율이라는 인과율적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도법 스님과 미산 스님, 해인사 출원장 혜능 스님 등도 "부처님의 연기적 가르침을 현대사회상황에 맞게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불교생명윤리 정립 추진위원회 백남석 공동위원장은 "불교생명윤리문제에 대한 접근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현실 중심적이어서 안 된다"며 "향후 분야별 연구에서는 현 상황과 조건에 맞게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천성산 지킴이 지을 스님을 살리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 사진=박재원 기자

천성산 지킴이 살려달라

정부 대책 촉구 전국서 촛불집회

단식 87일 넘긴 지을 스님

지을 스님의 단식이 계속되고 있다. 1월 21일 현재 87일, 지을 스님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등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월 17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남영주 총리실 민정수석, 20일 광교호 환경부장관 등이 지을 스님과 차례로 만났지만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지을 스님은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1월 14일부터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을 스님과 천성산을 살리기 위한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민주노동당 등 종교·시민사회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문제해결에 적극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계종 호법부는 21일부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24시간 지을 스님의 신변을 체크하고 있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

법원 조정권고안 제시

2003년 수경 도법 스님의 3보일배로 전국적 환경 이슈로 떠오른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가 1월 17일 전면 재검토 취지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법원은 "새만금 매립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 확인소송" 대해 환경단체와 정부기관

에서 추천한 새만금 사업 재검토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 논의가 끝나기 전까지 방조제를 막지 않을 것을 명시했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서영 스님은 "법원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했다"며 "개발과 파괴가 아닌 생명의 관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송담 스님, 승산 스님 49재서 법문 '화제'

송담 스님은 1월 16일 서울 화계사에서 열린 승산 스님 49재에서 추모 법문을 통해 생전 승산 스님과 문답했던 '현양매구(懸羊賣狗)'를 소개했다.

송담 스님에 따르면 승산 스님의 부락으로 미국에 간 일이 있었다. 이 때 승산 스님은 "개는 양고기를 먹고 사람은 개고기를 먹는다"라는 법문을 했다. 이를 기억한 송담 스님은 외국인 제자들에게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불교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까지 개고기를 먹어야 되겠는가. 개고기가 싫으니 양고기를 달라는 말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 말은 들은 승산 스님은 "그저 참 잘했다"며 자신의 마음을 아는 송담 스님에게 크게 박수를 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송담



승산 스님 49재 추모법문 중 송담 스님의 즉석 법거리가 화제가 되고 있다.

스님의 법문에 한 스님이 의의를 제기하자 또 다른 스님이 "개구죽착(開口即縛)"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송담 스님은 "이 자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다른 사람의 입을 열지 말라"고 일갈했다.

남동우 기자

인도에 '제2 나란다 대학' 건립

인도에서 불교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나그푸르에 '제2 나란다 대학'이 건립된다.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인도 구자라트 여학생 기숙소와 나그푸르 여성성상센터 준공식에 참석하고 온 참여불교제가연대 민정회 국제협력국장은 "동행했던 김태제 불교아카데미 이사사이네임즈 대표이사 가 세계 최초·최대의 불교대학으로 유명한 나란다 대학을 복원시킨다는 취지로

인도 나그푸르에 불교대학과 승가대학 설립을 TBMSG(서구불교교단우의회 인도지부)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도불교지원사업단(참여불교제가연대) 우리는선우, 현대불교신문,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은 약 30만명에 이르는 대학건립 부지와 대학 건립 재원 조달을 위해 TBMSG, 일본, 대만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건립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미국 주립대학 국내 2년과정 2005학년도 신입생 모집

50개 미국대학 총장협의체가 보장하는 유학과정

미국의 Presidents' Network 산하 50여개 대학에 국내이수 학점 인정, 편입, 학위취득과정 협정

유학기간은 짧게, 비용은 싸게

국내에서 미국대학 1~2학년 교양과정을 이수, 3~4학년 전공과정만 미국에서 유학 학비, 숙식비, 일반경비, 등을 절반이상 절약

집중적인 원어민 영어강의로 영어수강능력 함양

1~2학년 교양과정을 전부 원어민 영어로 강의함으로써, 미국에서의 영어수강능력을 충분히 습득 후 유학

특전

- 2년 후 미국 50개 대학에 수능불문, 희망전공 3학년 진학가능
- 능인선원이 미국의 불교/한학과 대학설립시 입학 특전

▶입학자격은...

- 고졸이상의 학력자
- 수능시험 성적과 무관
- 영어 우수자 우대

▶국내 교육장소는...

- 미국 협정대학들이 위탁한
- 해외교육개발특구내 대학(순천제일대학, 극동대학교 등)

★신입생 모집 / 유학설명회 개최★
(www.2plus2.co.kr 참조)

- 1/21(금) 오후4~6시 역삼하이츠빌딩(YBM플라자)
- 1/22(토) 오후2~4시 서울여학원 (강서구 신정동)
- 1/23(일) 오후2~4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미국유학이 한결 쉬워졌어요!"

1~2학년은 한국에서, 3~4학년은 미국에서
국내 최초로 미국대학 편입학 코스 운영!



Nungin Educational System
프레즈넛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1-6
TEL.02)512-4831 FAX.02)3444-3688